정의 수호한 왕과 성자 나가세나의 만남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㉜〈밀린다팡하〉 1

〈밀린다왕문경〉 혹은 〈나선비구경〉으로 불리는 이 책은 '여시아문(如是我聞)'의 부처님 설법 경전은 아니다. 후대에 성립된 대론서(對論書)의 형식으로 경율론 삼장의 스타일을 벗어났지만 모두 부처님의 법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후대 경전에 포함시켜 유통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론은 주로 인생에 관한 혹은 철학적인 주제로 서로 의심이 나는 것을 서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여러 주제를 이렇게 토론하다보면 철학적 소양이 깊어지는 소통방식이다.

〈밀린다팡하〉는 기원전 150년 경 서북인도를 지배한 그리스왕 메르난데스가 당시 최고의 불교지도자인 나가세나 스님에게 '불교란 어떤 가르침인가?'를 질문하면서 시작된 내용이다.

메르난데스는 인도에 알려진 그리스왕 40여 명 중 문헌에 등장하는 유일한 왕인데 정복자가 인도인의 역사에 긍정적인 의미로 등장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아마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훗날 평등한 정치를 위해 노력한 왕이기 때문일 것이다. 알렉산더에 의해 세워진 굽타왕조부터 서북인도를 침입한 이후 그리스인들에 의해 세워진 박트리아왕조의 메르란데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가니스탄 카불 근처에서 태어났다. 왕위에 오른 뒤 영토 확장에 힘을 쏟아 여러 나라를 합병하면서 유화정책으로 민중의 선망을 얻었으며 타고난 경제적 감각으로 부강한 나라를 건설했다. 그 시대에 국제무역에 통용되었던 화폐가 22종이나 되었다. 그가 죽인 뒤 200년 후에 제작되어 통용되었던 동전이 1942년에 발견되었다. 거기에 메르난데스를 '정의를 수호하는 왕'이라 새겨져 있었다. 이 책의 첫 장은 그의 전생스토리로 시작된다.

과거 가섭불시대에 갠지스 강가에 비구들이 수행하고 있었다. 계율과 수행을 잘 하는 비구들의 첫 일과는 빗자루를 들고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며 번뇌를 쓸어내듯 경내 청소를 하는 것이다. 어느 날, 쓰레기가 엄청 쌓여 있어 한 비구가 지나가는 어린 사미에게 치우라고 말하지만 사미는 못 들은 척하고 가자 화가 난 비구는 쫓아가 빗자루로 사미를 때렸다. 사미가 억울한 마음에 울며 청소를 하면서 스스로를 달래려 마음속으로 발원을 한다.

"이렇게 청소를 한 공덕으로 열반에 이르기 전에 어디에 태어나더라도 빛나는 태양처럼 커다란 위력과 광채를 갖게 해주세요." 청소를 다 마치고 나무에 기대어 세차게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큰소리를 내어 또 발원을 하였다.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나더라도 갠지스 강이 저렇게 막힘없이 세차게 흐르는 것처럼 변재(辯才)를 얻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소서." 그때 마침 갠지스 강에서 목욕을 하던 비구가 그 말을 듣고 어린 사미도 강물을 보고 저런 발원을 하는데 나도 발원하리라 생각하고 흘러가는 물살을 손으로 만지며, "열반에 이르기 전에 어디에서 태어나더라도 갠지스 강의 이 힘찬 물결처럼 막힘없는 변재를 성취하여 반드시 저 사미가 내게 묻는 질문에 막힘없이 다 대답하고 난제를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소서!"

세월이 흘러 그 때의 비구는 나가세나, 어린 사미는 메르난데스 왕으로 태어났다. 왕은 어느 날 군사의 사열을 마치고 태양을 바라보며 신하들에게 지혜를 찾아 수행하는 성현들에게 인생에 대하여 토론하고 싶다며 현자를 찾아오라고 명령한다. 명령을 받고 떠난 사람들이 모셔온 모든 철학자들은 몇 마디 나누자마자 말문이 막혀 스스로 떠났다. 왕은 더욱 교만해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분노했다.

그리고 철학자, 수행자, 바라문들을 매일 괴롭혔다. 불교 교단에서도 많은 토론자를 보냈지만 한 방에 말문이 막혀 돌아왔다. 아라한과 장로들이 나가세나를 찾아와 날마다 난해한 질문으로 수행자를 괴롭히는 왕을 굴복시켜달라고 한다. 이 말을 듣고 나가세나가 왕을 만나러 출발을 하니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이 엄청난 토론의 장소에 빠질 새라 함께 길을 나서는 비구들이 모두 8만 명이었다. 그 무렵 왕도 나가세나의 이름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가 매우 유능하고 지혜로우며 용기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여 담론에도 뛰어나서 어떤 질문에도 시원시원하게 답을 하여 모든 이들의 갈증을 해결한다고 하자 무작정 5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가세나 스님을 뵈러가겠다고 출발한다. 서로 출발하여 중간에서 만나게 되니 영겁의 세월을 지나 비구와 어린 사미가 드디어 만나게 된 것이다.

〈계속〉

〈서울 반야사 주지〉

주는 것과 받는 것, 결국 같은 것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㉛ 참 부자가 되는 길… 보시바라밀

사회생활 근 30년이 되던 어느 날, 이제는 선지식이 시키시는 보시바라밀을 실천할 때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구청에서 대문과 담을 헐고 포장도 해주며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나는 구청에 요청하여, 마당에 대나무로 엮은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무료급식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대중에게 공양하는 연습을 3년간 하라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보시바라밀을 실천하여 빈궁한 마음을 해탈하고,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욱 큰 것임을 느끼고 싶었고 참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을 실감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무료급식의 뜻을 세우자마자 여기저기서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인들의 성금이 답지하였을 뿐 아니라, 잘 모르던 사람들도 자신들이 쓰던 각종 물건들을 보시하려고 하였습니다. 자원봉사를 자청하는 사람들도 예상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학교수가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무료 급식소를 만든다는 내용이 주간지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여기저기서 성금이 답지했습니다. 지금도 매우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조계사 주지스님을 비롯한 원주 스님께서 무료 급식하기에 충분한 양의 국수를 근 10년간 꾸준히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료급식소 근처의 시장상인들은 아무도 모르게 채소류를 가져다 놓는다거나, 좋은 일 하신다고 고맙다고 하시며 매주 한 번씩 과일이나 떡을 주셨습니다. 어느 때는 무료 급식하시는 노인들께서 꼬깃꼬깃 모은 돈을 성금으로 내기도 하십니다. 그 중 가장 인상에 깊이 남는, 눈물겨운 일이 있었습니다.

무료급식을 시작한 지 5년쯤 되었을 때, 마당에 지어놓은 무료급식소 건물이 무허가라며 누군가가 구청에 신고하였고 구청 직원들은 무료 급식소 건물을 폐쇄하라고 독촉하였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됐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수백 명의 어르신들은 연대 서명하며 구청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만약 구청에서 이 진정서를 받고도 건물을 철거하라 한다면, 나는 구청 마당에 드러누워 단식하며 이 무료 급식소 폐쇄를 온 몸으로 막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였습니다.

oo지구당 사람들은 책임지고 구청의 처분을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기저기서 무료급식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모습에서 경주 최 부잣집의 수백 년 전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만 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이런 철학을 가진 최 부자는 흉년이 들면 빌려간 쌀을 못 갚는 농민들의 담보문서를 모두 없애고, 그 대신 죽을 쑤어 농민들과 푸짐하게 나누는 아름다운 선행으로 이어졌다. 어느 때 최 씨 집의 비리를 관청에서 발견하여 탄압하려 하자, 최 씨 집안의 은혜를 입은 동네 사람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관청의 탄압을 막았다.

마치 경주 최 부자의 미담과도 같은 일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니, 무료급식의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 세상의 인정은 결코 메마르지 않았음을 실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라는 '불이(不二)'의 진리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삼전대(三錢帶) '이 뭣고'

당나라 때 배휴, 배탁이란 등이 붙어나온 쌍둥이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외삼촌 집에 의탁하며 살고 있던 중 한 스님과 외삼촌과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이 아이들이 이 집서 같이 살면, 이 집안도 망하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이들은 외삼촌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집을 나와 떠돌다가 산중 암자서 부목일을 하며 지냈다. 그러던 중, 아침에 목욕탕서 청소를 하다가 보자기를 발견했는데, 풀어보니 값진 보물(寶物)로 만들어진 삼전대였다.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 이것 하나면 평생을 부자로 편히 살 수가 있었지만, 필히 무슨 사연이 있는 물건이라 생각하고 기다리던 중, 할머니가 허겁지겁 달려 오시며 보자기를 찾으시니 배휴가 그것을 내어 드렸다.

사연(事緣)인즉 부농(富農)으로 외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실수로 마을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중국에 가서 삼전대를 구해서 원님에게 바치면 아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하여 모든 재산을 팔아 사가지고 오던 중 절(寺)이 있으니 목욕재계 하고 잠시 부처님전에 예배드리고 아들을 살리겠다는 급한 마음에 삼전대를 잊고 간 것이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외삼촌집에 다시 가니 마침 전에 오셨던 스님이 계시는데, 배휴를 보고 외삼촌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 아이를 잘 공부시키면 나중에 삼정승(三政丞)은 물론 대도(大道)를 이룰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이다.

이유인즉 전에는 배휴의 관상(觀相)을 보았지만 지금은 심성(心性)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 후 열심히 공부한 배휴는 정승이 되었다. 하지만 헤어진 동생인 배탁을 찾을 수 없던 차에 황하강을 배 타고 건너게 되었는데, 여름

"나는 산과 물을 벗삼아 오고 가는 사람들을 건네주며 대자연과 함께 노니는 것이 형님의 삼공지위(三公地位)와 바꿀 것 없는 내 복이라 생각해 찾지 않았습니다"

이라 사공이 웃옷을 벗고 노를 젓고 있었다. 그의 등에 나 있는 흉터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배휴 정승은 그가 자신이 그토록 찾던 동생 배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너는 내가 정승이 된 소식을 못들었느냐?"하고 묻자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배탁이 답했다.

그럼 왜 찾아오지 않았느냐고 하자, 배탁은 "형님은 형님의 복으로 정승이 되어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나는 산과 물을 벗삼아 오고 가는 사람들을 건네주며 대자연과 함께 노니는 것이 형님의 삼공지위(三公地位)와 바꿀 것 없는 내 복이라 생각해 찾지 않았습니다"고 답했다. 그리고 결사코 그는 형을 따라가지 않았다. 언제인가 홍주자사(洪州刺史)로 있던 배휴가 이 절에 왔다가 벽에 그려진 고승들의 화상(畵像)을 보고, 안내하는 스님에게 물었다.

"저것이 어느 고승들의 상(像)입니까? 형상은 그럴 듯한데 이 고승들은 지금 어디에 있소?" 안내하는 스님이 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이 절에는 선사(禪師)가 없느냐고 재차 물었다.

근간에 한 스님이 오셨는데 선사 같이 보인다고 답했다. 사실 그는 황벽선사였다. 선사는 백장의 법을 받아 여러 곳을 다니다가 용흥사에 머물면서 청소나 하고 밥을 얻어 먹고 있으면서 자신을 숨기고 있었다.

그러자 배휴는 그 선사를 불러 오라고 했다. 배휴가 선사에게 물었다.

"지금 저 벽에 그려진 고승들은 어디에 있소?

이때 선사는 큰 목소리로 "배휴" 하고 불렀다. 배휴는 깜짝 놀라며 엉겁결에 "예"하고 대답했다. "지금 어디에 있는고?"

언하대오(言下大悟)라, 언하에 깨달음을 얻고 배휴는 즉시 황벽 선사에게 귀의 하였다. 그 자리는 행행도처(行行到處) 지지발처(至至發處)라, 즉 가고 옴이 없는 동시(同時)이고 역천겁이불고 항만세이장금이라. 천겁이 지나도 옛 되지않고 만세를 뻗쳐 바로 지금이라는 의미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 (54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8년 9월 3일 (월요일)** 부터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 신 대 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18년 8월 1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8년 9월 12일 수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상단불공의식
◇원서교부 : 2018년 8월 1일 부터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8년 9월 4일 화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